

# Hongkong Bradbury Hospice Center

오 원 옥 (고려대학 의과대 간호학과 강사)

1 차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 홍콩 연수 결과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특별히 Bradbury Hospice(이하 BBH)에 대해서는 깊은 인상을 갖게되었고, 그에 따라 후속 연수팀을 구성하여 BBH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해보자는 평가결과가 제시되었다.

호스피스협회 국제분과 위원회에서는 소수로 구성된 연수팀을 선발하였고 본인 역시 운 좋게 그 팀의 구성원으로 참여 할 수 있었다.

이 연수의 목적은 주로 관찰 위주로만 시행되어져 왔던 이제까지의 연수성격과는 달리 소수의 구성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수행하는 man to man 식의 연수에 목적이 있었다.

이 연수에는 김영준 내과 원장인 김영준 선생님, 부산대 부속병원 수간호사 고영희 선생님, 성요한 병원 호스피스 병동 수간호사 박인순 선생님 그리고 본 필자로 총 4인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 모두 각자의 유니폼을 준비하여 갔으며 그곳에서 직접 참여하여 실제로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BBH는 이제까지 교과서에서 이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호스피스의 원칙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기관으로 본인을 비롯한 연수를 다

녀온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었고 앞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계획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었다.

이 연수에서는 BBH, AIDS society, hospice home care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참여하여 그곳의 종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사업가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와의 만남

사회사업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이다. 즉, 환자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과 사별가족간호이다.

첫째,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는 예를 들어 가족 중에 환자를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우선 친척, 또는 이웃 중에 지지해주고 도울 사람이 있는가를 사정해 보고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자선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경우에도 나라에서 보조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알선해 준다.

둘째, BBH의 장점 중 하나인 사별가족간호

를 담당한다. 즉, 사후 가족의 슬픔, 비애(grief) 등을 사정하여 각 가족의 비애정도에 맞게 엽서를 띄우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자조그룹(self-help group)을 조성하여 이끌어 준다.

또한 어린이에게 죽음을 이해시키기 위해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책자를 마련하여 어린이에 대한 사별가족간호를 실시하고 있다.

BBH는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받은 후 각자의 역할과 하고싶은 일을 선택하여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즉, 꽃꽂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환자의 침대 옆에 있는 화병에 예쁘게 꽃을 꽂아 환자들을 위로하고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싶은 사람은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가족들을 방문하여 사별가족간호나 집안일 등을 도와주기도 한다.

## IPU(In Patient Unit)

BBH는 26bed를 갖고 있고 입원실의 구조는 station과 입원실, 준비실, 목욕실로 구성되어 있다.

목욕실에는 환자의 bathing을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져서 환자가 침대째 옮겨져서 그대로 목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환자의 투약은 pain control이 주가 되는데 투약지시는 아침에 의사가 한 후 간호사는 medication car가 있어 직접 환자 앞에서 조제한 후 먹인다. 반드시 간호사가 투약하며 보호자에게 맡겨 투약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때 error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간호사 2인이 같이 조제하여 double check 한다.

Charting도 또한 multi-disciplinary approach

를 실천하고 있는데, 즉 간호사, 의사, 사회사업가, 임상심리사 등이 따로 각각의 양식을 갖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progress note에 각 영역별로 pen의 색깔만 달리하여 기록을 하므로 그 환자에 대한 총체적인 간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 간호진단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NANDA의 간호진단 중 Hospice care시 주로 사용되는 진단을 선별하여 Check list 형식으로 기록양식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BBH는 매주 2회 입원환자에 대해 case conference를 실시하고 있다. 이 conference에는 담당간호사, ward manager, nurse specialist, nursing general manager, 원장, 의사, 사회사업가, clinical psychologist 등 각 분야의 모든 사람이 참여해 환자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한 후 결정한다. 이 case conference에서도 multi-disciplinary approach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예 : 퇴원날짜, care 방법)을 위해 서로가 각자의 전문기적인 의견을 교환한 후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중요한 것은 conference의 대상이 환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면 참여자들은 'how about mother or sister or family?' 라는 식의 물음을 던지면서 가족에 대한 hospice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Home Care Visit

Home Care Visit 은 Tai Po에 있는 day

care center에 사무실을 두고 10명의 가정 방문 간호사가 100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었다. 홍콩의 home care nurse는 hospice 경력이 1년 이상으로 그 후 hospice 간호에 대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한다고 한다. Day care center의 대략적인 설명을 들은 후 각 간호사와 함께 직접 환자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home care nurse 역시 그들의 간호 대상을 환자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가족까지 간호하고 있는 것을 가정 방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한 사람의 간호사는 하루에 최소한 3명의 환자를 방문한다고 한다. 이들은 또한 호출기를 착용하여 환자들이 24시간 call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ome care nurse들은 매주 금요일에 BBH에 와서 home care case conference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는 모든 home care nurse와 원장, nurse specialist, nurse general manager, 사회사업가, 의사 1명이 함께 참여한다. 각 간호사는 자신의 환자 중 특별히 문제되는 환자, 그리고 새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 briefing을 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한다. 이 Home Care Case Conference에서도 역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이상적인 multi-disciplinary approach를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Tai Po Day Care Center

BBH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전에 Tai Po의 day care center에 있는 OT가 와서 day care

를 실시하고 있었고, Tai Po day care center에는 매일 환자들이 방문을 하고 있었다. 환자들은 자신이 하고싶은 것을 하기도 하고 삼삼오오 모여 마작(중국 장기)을 하기도 하고 또는 명절 전에는 떡을 만든다든가, 손 수예를 하는 등의 작업요법을 OT와 함께 하고 있었고 차를 마시며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다.

Day care center에서는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질병과 임박한 죽음에 의해 상실되기 쉬운 자기 가치감, 또는 자아존중감을 갖도록 하여 좀 더 나은 질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다.

또한 Tai Po의 day care center에서는 환자를 day care center에 나오게 함으로써 24시간 환자를 간호하는데 지친 가족이나 친척들을 쉬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치료적인 조언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공해 주고 있었다.

### Society of AIDS Care

홍콩과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사회 거주인들에게 home care service를 실시하고 있는 Society of AIDS care 방문은 하루 일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오전에 palliative care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오후에 AIDS center의 방문과 직접 AIDS 환자를 만나 그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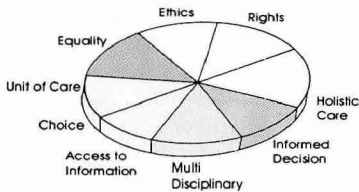
건물은 산을 따라 나있는 도로로 한참 올라

간 곳에 자리잡은 큰 저택으로 앞에는 넓은 정원이 있고 담장 없이 나무로 둘러싸여져 있다. 저택을 개조한 건물이기 때문에 병원이나 요양소 같은 분위기보다는 일반 가정집에 방문한 듯한 느낌이었다. 거실에는 응접세트가 마련되어져 있고 한편에는 책장에 책들이 꽂혀 있었다. 책장아래에는 큰 원탁 table이 마련되어져 있어 누구든지 앉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더 안쪽으로 들어서면 HIV와 AIDS환자들을 돌보는 유일한 의사인 Dr. Emma의 사무실과 환자의 입원실이 3개 정도 마련되어져 있다. 아직은 입원환자를 받지 않고 Home care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나 개조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받을 예정이라고 하였다. 입원실에는 가정과 다르지 않게 침대도 병원 sheet가 아닌 일반 침대 커버로 장식되어 있었고 창문의 커튼도 밝은 색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물론 각 방마다 욕실과 TV 등도 가정과 같이 꾸며져 있었다.

이곳에서 BBH와 AIDS care society의 주선으로 AIDS환자를 만날 수 있었다. Society의 대표들은 이 환자들을 volunteer라고 소개하였다. 이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이 society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고 이 society에 대해 크게 감사하고 있었다.

1) Principles of Palliative care & HIV



All aspects of equal value and importance

2) The Society for AIDS care

이 center는 홍콩과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사회 거주인들에게 home care service를 실시하고 있다. 이곳은 HIV와 AIDS를 갖고있는 환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서비스의 범위 \*

- residential care center
- day care
- home care nursing
- family support
- bereavement counseling
- research
- education

\* Society for AIDS care 의 목적 \*

- 본 center 와 가정에서 HIV와 AIDS 환자들이 질적인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증진시키고 최상의 palliative & terminal care를 제공해 주는 것.
- HIV와 AIDS를 갖고있는 환자들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더 나은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3) Home care nursing service

환자들의 친숙한 환경인 가정에서 home care nursing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home care nursing service의 대상은 AIDS에 노출된 11세 이상으로 집에서 palliative nursing care or nurse's consultation이 요구되는 모든 사람이다.

이상으로 본인이 BBH에서 경험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아마도 이 지면에 제시된 내용들은 실제로 BBH에서 경험하고 느낀 부분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일 것이다.

본인은 홍콩의 BBH에서의 경험 이전에는 호스피스가 'dying'에 초점이 맞추어져 대상자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죽음' 또는 '만족된 삶의 마무리'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본인의 잘못된 인식은 BBH에서의 첫날의 경험에서부터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BBH에서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은 어느 누구도 대상자들의 'dying'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았고 그들의 '삶(living)'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즉, 대상자들의 남아 있는 생의 '질적인 삶'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사실 이것을 만약 문구로 접했다면 이 정도의 감동은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본인이 BBH 연수결과 얻은 최대의 깨달음이고 앞으로 본인의 행동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BH는 우리가 그저 교과서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호스피스 센터였다. 크게는 호스피스가 다학제간의 접근이라는 부분을 실천하고 있었고 작게는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 적극적 경청(active listening)을 해야한다는 식의 호스피스의 실천 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센터였기 때문이다.

호스피스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식 호스피스와 home care visit, daycare center, IPU 등이 서로 연계성을 갖고 이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호스피스의 진면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BBH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 계획을 세워 다른 회원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AIDS society에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 해 준 volunteer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 Bradbury Hospice Center 정원

